

천년의 자긍심 새천년을 향해

오늘 전라도 천년 기념식

전북·광주·전남 등

3개 시·도가 참여

전라도인 소망의 메시지

타임캡슐 봉인 등 이어

전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 3개 시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18일 10시 30분에 전주 전라감영 일원에서 연다.

3개 시도는 그동안 올해 1월 1일 천년맞이 타종식에 이어 4월에는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등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광주와 전남에서 개최했으며, 이번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3개 시도 단체장들과 지역민들이 다시 한 번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라도 천년기념식이 개최되는 전라감영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까지 아우르는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이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다.

또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인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설치를 위해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의 총본부였던 대도소가 설치됐던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뜻깊은 장소로 현재 전라감영은 복원 공사중이다.

전라도 천년 기념 행사는 천년의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남계 일성이라 불리는 풍남문 앞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17일 전야제와 전라감영에서 개최되

는 18일 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7일 전야제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의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 풍남문 앞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전북, 전남, 광주 3개 지역 대학생들의 사물놀이, 버스킹 공연과 천년의 역사 이야기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의 방향에 대해 역사학자 최태성이 들려주는 미래천년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또한 3개 시도 단체장과 전라도 어원의 근간이 된 전주 나주의 단체장이 함께하는 타종식과 천 개의 빛 퍼포먼스, 소리삼대(조통달, 조관우, 조현)와 인기가수의 축하 음악회가 가을 밤의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전라감영 부지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천년 기념식은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응비!'를 주제로 기념사, 주제영상 상영, 기념식 퍼포먼스, 전북도립국악원의 주제 공연으로 이어진다.

3개 시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제영상 상영은 천년의 자긍심(전라도 천년 역사의 시작, 호국정신, 동학혁명 등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 중심지, 한문화와 예술 음식의 중심지)으로 미래 천년의 희망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새천년에 바라는 전라도인의 소망의 메시지 타임캡슐 봉인과 새천년의 문을 여는 두드림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기념식은 120여명이 출연하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아홉찬 전라도 천년 특별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김진성 기자



17일 수원에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지방정부협의회는 전주시 등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상임회장 선출

김승수 전주시장이 17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김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39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규약 채택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식 출범했다.

시 "꾸준히 추진해온 행복 정책사업 우수성 인정받아"

김 시장이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전주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행복 정책사업과 우수성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4년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설치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했으며, 2015년부터 매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공동행복지표 개발, 행복정책 포럼 및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정책 개발, 담당공직자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행복정책 홍보사업 등을 통해 행복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담은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민 행복에 맞출 것을 결의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 행복의 집을 높이고 그 안에서 발휘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행복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새만금 공사, 재벌 토건업체에게 '돈벼락'

상위 20곳 수주액 4조5100억원 중 72% 그중 현대건설이 20%차지... 도내 업체는 0.2%에 그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벌 토목건설업체에게 '돈벼락'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사업에 전북의 운명을 걸고 도민과 도정 역량, 정치권의 힘을 총동원해 중산 위기의 사업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토건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인 수주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 재벌 토건업체들은 전북의 땅인 새만금에서 수조원의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은 외면하는 등 새만금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김중희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 부안)이 16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공사비 기준 상위 20개 토건업체의 수주액은 3조2454억9500만원에 달했다.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쏟아 부은 4조5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2%에 달한다.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압도적 1위는 현대건설로 9166억9600만원을 수주했다. 새만금 전체 공사비 대비 20%를 넘는 점유율이다.

2위부터 5위는 대우건설(6639억원), 대림산업(5716억원), 롯데건설(1674억원), 현대산업개발(1110억원) 순이었다.

'수주 랭킹 탑5 업체'의 수주액은 2조4293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53%를 차지했다.

이 뒤를 SK건설(1069억원), 계룡건설(1016억원), 포스코건설(969억원), 삼부토건(909억원), 한라(780억원)가 랭킹 탑10을 형성했다.

'수주 랭킹 탑10'의 수주액은 2조9037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64%를 차지했다.

회사 소재지가 전북인 업체는 각각 18, 19, 20위를 차지한 흥성(53억원),

삼호토건(28억원), 도영종합건설(26억원) 단 3곳뿐이며 수주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새만금 공사비의 0.2%에 그쳤다.

새만금에서 많게는 1조원 가깝게, 적게는 1천억원을 수주한 '랭킹 5' 재벌 토건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 토건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과 배려를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중희 의원은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으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이 적용된다면 외지업체들이 새만금의 성과를 독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속보〉- 군산 만경강 하구 야생조류서 시 검출

제2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

10월 20일(토) 오후 2시

남원 사랑의 광장

(남원시 아연동 37-12)

주최: 남원시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